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또다시 상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주체 107(201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를 방문하시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또다시 상봉하시였다.

조선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의 력사에 특기할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속에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의미깊은 상봉과 회담이 중국 료녕성 대련시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5월 7일



의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의를 표시하고 전용차에 오르시어 숙소인 방추도빈관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숙소에 도착하시자 종업원들이 열광적인 박수로 반겨맞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사이의 상봉과 회담이 이날 오후 진행되였다.

습근평 주석이 대련에 와서 김정은 원수님

오전 전용기를 타시고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리수용,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의무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영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성원들이 수행하였다.

형제적린방의 친근하고 가장 귀중한 벼를 맞이하게 된 대련국제비행장은 두터운 우의의 정과 열정적인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왕호녕 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왕의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과 진구발 료녕성 당위원회 서기, 담작균 대련시 당위원회 서기가 비행장에 나와 있었다.

현지시간으로 낮 12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전용기가 대련 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용기에서 내리시어 영접나온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정깊은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녀성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면서 환영

을 친절하게 맞이하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습근평 주석과 따뜻하고도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한달여 만에 또다시 만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2면으로 계속)



김정은 원수님께서 습근평 주석과 또 다시 상봉



(1 면 에서 계속)

이어 김정은 원수님과 습근평 주석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리수용,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의무상이 참가하였다.

중국측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왕호닝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정실상 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양결지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의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 부장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최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는 조선반도정세흐름과 발전추이에 대한 평가와 견해, 자기 나라의 정치경제형편들이 호상 통보되고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추동할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의 해결방도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습근평 주석과 비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멀리 대련에까지 와서 따듯이 맞아 주고 온갖 성의와 지성을 다하여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세심히 조직하여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근 조중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승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말씀하시었다.

특히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긴밀한 고위급래왕과 조중 최고지도부사이의 전략적사소통이 전례없는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나날 조중사이의 마음속거리리는 더욱더 가까워졌고 떼어놓을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사이의 친선적인 래왕을 확대하며 령활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밀접한 령계를 유지해나가기 를 바란다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조선반도주변정세추이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시고 전략적기회를 틀어쥐고 조중사이의 전술적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강화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국동지들의 견결한 지지성원과 동지적협력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감사를 표시하시었다.

습근평 주석은 김정은 동지의 이번 방문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증시하며 자신과 중국당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룩한 합의를 실천하려는 진정 한 의지를 보여준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 3월에 진행한 첫 중국방문 이래 중조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하면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의사를 소통하고 조를하기 위해 친히 중국에 오신데 대해 다시 한번 사의를 표시하였다.

습근평 주석은 중조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라고 하면서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려는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하였다.

습근평 주석은 조선로동당이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데 대하여 지지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령도하에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이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친선적인 립방으로서 조선반도정세의 발전과 변화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최근에 취하신 중대한 결단과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고 전적인 지지를 재 천명하였다.

회담은 솔직하고 신뢰적이며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여 습근평 주석이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리수용,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의무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수행간부들과 수행원들이 연회에 초대 되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왕호닝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정실상 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양결지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의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부장을 비롯한 중국의 당과 정부간부들이 여기에 참가 하였다.

김정은 원수님과 습근평 주석이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조중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 가시는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먼저 습근평 주석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습근평 주석은 생기가 발랄하고 약동하는 기상이 나래치는 이 아름다운 시절에 또 다시 중국에 오신 김정은 동지를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였다.

김정은 동지의 이번 방문은 위원장동지와 조선당중앙이 중조관계 특히 두 당사이의 전략적사소통을 고도로 증시하고있으며 우리 쌍방의 중요한 공동의 합의를 리행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는 전세계에 진통적이며 공고한 중조친선을 다시금 과시하였으며 중조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습근평 주석은 조선동지들과 함께 쌍방의 중요한 합의를 계속 잘 리행하고 전략적사소통을 강화하며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고 친선의 전통을 빛나게 발양함으로써 중조관계의 새롭고 보다 큰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하였다.

습근평 주석은 계속하여 김정은 위원장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위업의 위대한 로정에서 반드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하리라고 확신하며 이를 축원한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습근평 동지와 친근한 중국동지들을 40여일만에 다시 만나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고 회포를 나누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중국당중앙의 따뜻하고 친절한 환대와 극진한 관심에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여기 대련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력사의 발자취를 남기신 뜻깊은 고장이라고 하시면서 두 나라 령도자들의 두터운 동지적신뢰와 의리는 중조 두 나라 인민들을 영원히 가를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시킨 혈연적누대의 뿌리가 되어 세기와 세대를 넘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국과 같은 위대한 립방, 중국동지들과 같은 미덥고 진실한 벗을 가지고있는 궁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장정에서 친근한 중국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가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국인민이 습근평 동지가 펼친 중국의 꿈을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온 세계에 중화민족의 위용과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게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시었다.

외교적관례와 격식을 초월하여 조중 두 나라 인사들이 한집안식구처럼 어우러져 따듯하고 진실한 정과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연회장에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러넘쳤다.

(3 면 으로 계속)



김정은 원수님께서 습근평 주석과 또 다시 상봉



(2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5월 8일 오전 또 다시 습근평 주석을 만나시고 해변가를 거니시며 흥금을 러놓고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습근평 주석이 방추도비관 청도각에서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였다.

오찬에 앞서 김정은 원수님과 습근평 주석은 차문화를 보여주는 기교를 감상하시고 중요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 우정과 존경, 흠모의 감정이 뜨겁게 넘쳐 흐르는 속에 진행된 오찬은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특별한 동지적 친분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오찬이 끝난 후 습근평 주석에게 중국 체류 기간 성심성을 다하여 각별히 환대해주고 중대한 사업과 관련한 진정 어린 고견을 들려준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정을 표하시고 작별의 약속을 나누시였다.

이날 일부 수행원들은 대련 동향 상무구와 중국 화록그룹을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8일 오후 체류 일정을 마치시고 전용기로 대련을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련 국제비행장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왕호녕 당 중앙위원회 서기 처 서기, 송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 연락 부장과 친구발 료녕성 당위원회 서기, 담작균 대련시 당위원회 서기가 환송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귀국길에 오르시면서 습근평 주석에게 감사서한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력사적인 상봉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조종 최고위급 상봉의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빛나게 계승해나가며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인 조종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김정은 원수님과 습근평 주석사이의 두터운 동지적 친분 관계에 기초한 조종친선은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사이의 거듭되는 상봉과 회담들에서 합의된 정신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5월 9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를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따뜻이 맞이하시며 얼마전 국무장관으로 공식 취임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국무장관의 우리나라 방문을 환영하시고 그와 기념 촬영을 하시였다.



행위를 감행하여 우리나라에 억류되어있는 미국인들을 석방하여줄데 대한 미합중국 대통령의 공식 제기를 수락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으로 특사를 실시하여 송환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훌륭한 회담을 진행하고 만족한 결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들의 평양방문기간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주시였으며 오늘 매우 유익한 회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대통령의 구두메세지를 직접 전달하며 조미수회담준비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바쁘신 시간을 내어 만나주신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석상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원수님께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구두메세

를 정중히 전달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메세지를 들으시고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현재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첨

예한 반도지역정세에 대한 평가와 견해, 조미수회담과 관련한 량국최고지도부의 립장과 의견을 교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다가온 조미수회상봉과 회담이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을 떼는 력사적인 만남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석상에서는 조미수회담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과 그에 해당한 절차와 방법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반공화국적대

한 합의를 이룩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미국무장관으로서 조미수회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결심과 의지를 표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다시 만났것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고 따뜻이 배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넷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4월 13일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의 로작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을 전세계군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에 즈음하여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가 4월 27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주체105(2016)년 10월 25일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총진군대오를 앞장에서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명시되어있다. 본사기자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외국의 벗들이 격찬

세계가 우러르는 걸출한 령도자를 진두에 모시고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은 진보적인류의 격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도이첼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서 조선

로동당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다고 하면서 희세의 위인을 모시고있으며 훌륭한 지도사상이 있고 훌륭한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마련맹원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령도아래 불패의 위용을 떨쳐온 영광스러운 당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당의 전투력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세계 진보적당들의 본보기로 되고 있다고 격찬하였다.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 김정은은 각하는 비상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위대한분비시라고 말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 쿠르나 호라군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은 선대수령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며 사회주의길을 따라 굴함없이 전진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사설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자

주재107(2018)년 4월 27일, 이날은 새로운 력사의 출발점에서 벗어났던 시계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북남사이에서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린 날이다.

조국통일의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바로 이날에 분별이후의 력사를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리해한 예지와 친철명망의 담력, 세련된 정치실력과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로 친히 마련하신 북남수뇌회담과 판문점선언은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의 장엄한 출발을 알리는 특기할 력사적사건이다.

긴긴 세월 분별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되어왔던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는 모습은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깊은 화폭으로서 온 세상을 커다란 충격과 열광, 환호와 경탄으로 뒤흔들고 있다. 50cm 폭의 분리선을 경계로 하여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져 있는 가슴 아픈 비극을 적라라하게 보여주는 곳, 절로로는 고요한 정적이 깃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는 바람소리에도 반사적으로 격발이 긴장이 서린다는 세계 최대의 초진장지대로 풍인되어 온 판문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장소를 민족분렬의 비극이 절게 드리워있고 북남쌍방의 무력이 가장 접해하게 대치되어있는 위험천만한 판문점으로 정하시고 몸소 남측지역에까지 스팀없이 나가시어 민족과 통일을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으로써 대결과 분렬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이제 평화의 상징, 통일의 상징으로 되었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위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드림같은 자주통일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요 유혹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안아오시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어 지난 10여년동안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를 불과 너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극적으로 전환시켜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혹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올해의 신년사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공화국의 대규모대표단이 련이어 남측지역에 파견되어 제23차 겨울철울림평경기대회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고 화해와 단합의 불길을 지피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지고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어 우리 겨레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봄을 크나큰 환희와 격정속에 맞이하고있는 것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고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진상상태를 완화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나갈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자주의 원칙을 핵으로 하고있는 4.27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이다.

판문점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선언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군사적진상을 완화하여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와 안전의 새봄을 마련한 위대한 선언,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제적지호를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

져온 중대한 선언이다. 판문점선언은 북남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북과 남이 터쳐올린 장엄한 신호라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넘넘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념원에 맞게 풀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정표이다.

판문점선언은 지금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분별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측면을 마련해주 태를 완화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나갈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자주의 원칙을 핵으로 하고있는 4.27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이다.

판문점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선언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군사적진상을 완화하여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와 안전의 새봄을 마련한 위대한 선언,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제적지호를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

게 다그쳐나가기 한다. 무엇보다도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풀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기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어제 그럭저럭이었지만 오늘도 래일도 계속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할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나라의 분렬은 외세가 강요한 것이며 침략적인 외세는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통일하는것을 두려워하고 각박으로 책망해왔다. 총계 발전하던 북남관계, 6.15 자주통일시대가 오랜 기간 진통을 겪고 대결과 전쟁위험이 날로 더욱 고조되어온 상황에서 반통일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과 그것을 뒤에서 부추기며 조종해온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때문이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는 북남관계의 순조로운 전진도, 민족의 평화번영의 밝은 앞길도 있을수 없다.

하기에 북과 남은 이번 판문점선언에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중요하게 확인하였다.

온 겨레와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고있는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의 진행과 판문점선언의 발표도 북과 남의 공동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특기

할 사변이다. 북과 남은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마땅히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번영의 새시대, 새로운 꿈과 희망이 기다리는 미래에로 보폭을 맞추며 전진해나가야 한다.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실현하여 판문점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하어 판문점분리선구역의 비좁은 길을 온 겨레가 활보하오갈수 있는 조국통일의 대동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진상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상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족이듯이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해야 할 당사자도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밝히고 있는것처럼 북과 남은 지상과 해를 아우르는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진상과 충돌의 근원을

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며 호상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이 활성화되는데 따른 여러가지 군사적보장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불가침합의를 엄격히 준수하며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로 나아가야 한다.

북과 남이 리해와 신의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모든것을 지참시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더욱 가속화될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룩될것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의 나날 가슴아픈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괴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력사, 하나의 문화가 되진 북과 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만대의 번영을 누리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환희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온 겨레는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과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조국통일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민족의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세계의 위인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이룩되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과 사변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활력있게 나아가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수많은 공장과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생활성화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전망이 열리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상승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인민의 웃음소리는 사회주의의 동력과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국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교육과 보건을 사회주의의 영상으로 내세우시고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인민들에게 더 잘, 더 많이 차체지도록하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그이의 위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전반기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전민학제와 최신과학기술수준의 전당, 거점들이 마련되어 공화국은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자랑떨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 이것이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이 있고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진영이 있고 그 어떤 공파에도 도박없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다고 하시면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대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목표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성화의 동음이 새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것이며 전망적으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는것이라고 부강조국의 위장한 미래를 펼쳐주시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2012년 4월의 뜻깊은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천명하신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도 조국통일3대헌장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고 온 민족의 요구와 리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숭고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라고 엄명하시었다.

민족의 화해단합으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의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두렵게 얼어붙었던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는 극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올해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통일이란 결단과 과학적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제23차 겨울철울림평경기대회가 고위급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을 비롯한 공화국의 사절단들이 련이어 파견되어 경기대회가 민족공동의 행사로 의의있게 치러지게 되었다.

습근평주석은 김정은동지의 이번 방문은 중조 두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증진하며 자신과 중국당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룩된 힘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로동당이 제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대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데 대하여 지지하고 김정은동지의 령도하에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이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조선반도정세의 발전과 변화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최근에 취하신 중대한 결단과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고 전적인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행하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혹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혁명적결단에 의해 마련된 력사적사건으로 된다.

판문점선언은 북남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북과 남이 터쳐올린 장쾌한 신호라이며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리정표이 되고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도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하기에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 환영하고있다.

재중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었다. 그분께서 계시어 오늘 의 판문점선언이 태어날수 있었고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

이다.》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재미동포들은 미국 전역에서 판문점선언을 지지 환영하는 다양한 모임을 열고 판문점선언에서 제시된 조국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온 민족이 판문점선언리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때 이 땅위에 평화번영의 새시대, 통일강국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발걸음이 더욱 가속화되고 조국통일의 희망찬 새시대가 도래한 력사적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엄명하신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를 방문하시고 습근평주석과 또 다시 상봉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습근평주석과의 회담에서 최근 중조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승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조선반도 주변정세주위에 대하여 분석화하시고 전략적기회를 틀어쥐고 중조사이의 절충적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강화해나가기 위한 방도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습근평주석은 김정은동지의 이번 방문은 중조 두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증진하며 자신과 중국당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룩된 힘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로동당이 제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대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데 대하여 지지하고 김정은동지의 령도하에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이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조선반도정세의 발전과 변화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최근에 취하신 중대한 결단과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고 전적인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행하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혹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혁명적결단에 의해 마련된 력사적사건으로 된다.

판문점선언은 북남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북과 남이 터쳐올린 장쾌한 신호라이며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리정표이 되고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도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하기에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 환영하고있다.

재중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었다. 그분께서 계시어 오늘 의 판문점선언이 태어날수 있었고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

남북에 굽이치는 위인칭송열풍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친철위인상을 온 남녘땅을 커다란 충격과 열광, 환호와 경탄으로 뒤흔들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품모를 목격한 남조선인민들은 저마다 《김정은위인장은 거침이 없었다. 말은 스팀없었고 행동은 자신감으로 넘쳤다.》, 《재치가 있고 호탕하였다. 때로는 솔직하면서도 대담하였고 유모아직이었다.》, 《담대한 지도자의 기질을 가진 모습이었다.》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만찬회장에서 그이를 만나뵈는 한 인사는 혈육의 정을 느꼈다고 하면서 《김정은위인장의 모습은 정말 감격적이었다.》고 하였으며 한 《국회》의원 은 그의 정정한 방문것을 일생의 영광으로 간직하겠다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남조선의 반전투쟁단체들은 조국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대동로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이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하여 조선반도 분단체가 허물어진다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화의 집》방명록에 남긴 친필을 보고 그이의 독특한 필체에 대해 찬탄하고있다.

남측의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필체는 호방하고 활달하며 필적하고 담대한 성격의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글씨를 빠르게 써내려가시는것은 매우 명석한 사고력을 지니고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이의 필체는 보기 드문 필체로서 매우 긍정적이고 탁월적이며 목표지향적이고 적극적이며 친취적이고 열정적인 위인상의 반영이라고 분석하였다.

남조선인터넷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품모를 칭송하여 《멋있었다. 김정은위인장님.》, 《김정은위인장은 담대한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났다.》,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이다.》, 《민족의 자랑으로 떠받들 지도자이다.》, 《김정은위인장님의 멋있는 모습에 민족의 미래가 있다.》 등의 글들이 수 없이 올랐다.

남조선의 반전투쟁단체들은 조국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대동로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이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하여 조선반도 분단체가 허물어진다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화의 집》방명록에 남긴 친필을 보고 그이의 독특한 필체에 대해 찬탄하고있다.

북남이 터쳐올린 장엄한 신호란

이 은반우를 달리던이 공화국의 예술단이 부르는 통일 노래와 북과 남이 목소리 합쳐 우리는 하나라고 웨치는 웅원의 목소리가 평창을 넘어 삼천리강도를 전진하였다. 그런가 하면 남측특사 대표단에서 이어 남측에 예술단, 태권도시범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기를 또다시 한껏 북돋아 온 삼천리강도가 화해와 단합의 봄기운으로 설레어있다.

남측에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일으키고 하시면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목목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은 온 겨레로 하여금 평화와 번영으로 밝고 창창한 민족의 미래를 그려보게 하였다.

지난 10여년동안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를 불과 너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극적으로 전환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정치실력과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에 의하여 전체 없이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오늘은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판문점선언도 채택되었다.

문으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북남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북과 남이 터쳐올린 장엄한 신호란이며 풀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리정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맹전의 산물인 오랜 분별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리어금

본사기자 리 설

